



거장의 '페르소나' 송강호

"22년 전 그 '까까머리' 봉준호 '뭐가 되도 되겠구나' 생각했다"

1997년 '초록물고기' 보고 나중에 작품 함께하자 말해 정중함과 예의 바름이 '물씬' '살인의 추억' 등 4편 찍어 촬영장의 거대한 산 그림자 어떤 연기도 받아줄 것 같아



봉준호 감독(왼쪽)과 배우 송강호가 28일 열린 영화 '기생충'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봉준호 감독과 처음 만난 뒤 '뭐가 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9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마주한 배우 송강호(52)는 20여 년 전 봉 감독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극 무대에 주로 선 송강호가 영화 '초록물고기'로 대중에 얼굴을 알리던 시기였고, 봉 감독은 영화 '모텔 선인장'의 각본과 조연출을 맡았을 때다.

"봉 감독이 '초록물고기'를 보고 팬 입장에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마포에 있던 영화사 사무실에 잠시 들렸어요. 그때 미래의 거장이 될 봉준호, 장준환 감독, 두 분이 까까머리를 하고 대학생 같은 느낌으로 앉아있었죠. 두 사람이 '모텔 선인장' 연출부라는 것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봉 감독이 나중에 '베베'에 녹음을 남겼어요. 나중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중함과 진심 어린 존중, 예의 바름이 물씬 묻어났죠. 그 녹음을 공중전화에서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나중에 뭐가 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송강호의 예상대로 봉 감독은 20여년 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이 됐고, 그는 거장의 페르소나가 됐다.

송강호는 봉 감독과 영화 '살인의 추억'(2003)부터 '괴물'(2006), '설국열차'(2013)에 이어 '기생충'까지 네 작품을 함께했다. 누구보다 봉 감독 작품세계를 잘 아는 그는 '기생충'이 '봉강호 월드' 최종점인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봉준호의 페르소나라는 수식어에 대해선 "과분한 칭찬"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는 '기생충'에서도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그가 맡은 배역은 생활고 속에서도 돈독한 가족애를 지닌 4인 가족의 가장 기택이다. 직업도, 대책도 없어 아내 충숙(장혜진)에게 늘 잔소리를 듣지만 매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4인 가족의 가장 기택이다. 직업도, 대책도 없어 아내 충숙(장혜진)에게 늘 잔소리를 듣지만 매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4인 가족의 가장 기택이다.

송강호는 "세상에 절대 선악이 없는 것처럼 기택 역시 선인도, 악인도 아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며 "초반과 중후반 이후 감정의 흐름도 변화나 각성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사' '마약왕' 등에서 단적으로 극을 이끈 송강호는 '기생충'에서는 이선균·조여정·최우식·박소담·장혜진 등 후배 배우들과 앙상블을 이뤘다. 모두가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누구 하나 뒤처지는 배우들이 없다.

송강호는 "봉준호라는 거대한 산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니 어떤 연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았다"면서 "다른 좋은 배우와 협업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

이었다"고 회상했다. 송강호는 이번 칸영화제에서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다'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 심사위원장의 말을 봉준호 감독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상을 안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며 "상은 하나밖에 안 주는데, 당연히 황금종려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송강호는 '수상 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2007년 '밀양'(여우주연상), 2009년 '박쥐'(심사위원상)에 이어 '기생충'(황금종려상)까지 그가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모두 상을 받은 덕분이다. 그는 "천만 요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수상 요정'은 처음 들어본다"며 활짝 웃었다.

송강호는 오는 7월에는 영화 '나랏말싸미'로 관객을 찾는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송강호는 "세상에 절대 선악이 없는 것처럼 기택 역시 선인도, 악인도 아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며 "초반과 중후반 이후 감정의 흐름도 변화나 각성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사' '마약왕' 등에서 단적으로 극을 이끈 송강호는 '기생충'에서는 이선균·조여정·최우식·박소담·장혜진 등 후배 배우들과 앙상블을 이뤘다. 모두가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누구 하나 뒤처지는 배우들이 없다.

송강호는 "봉준호라는 거대한 산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니 어떤 연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았다"면서 "다른 좋은 배우와 협업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

"공주처럼 살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져요"

'로마공주 메이커' 솔비 웹예능 내달 6일 공개



가수 겸 작가로 활동하는 솔비(본명 권지안·35·사진)가 라이프타임 웹 예능을 통해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솔비의 로마공주 메이커'는 솔비가 지닌 '로마공주'라는 애칭과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능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게임처럼 담아내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솔비는 29일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에게 당당한 여성이 되기 위해 응원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화 속 보편적인 공주가 아닌, 자존감 높고 당당하게 말하는 새로운 현대판 공주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 현대판 공주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것인데, 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모습을 더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많은 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무엇을 도전하든 맨만큼 중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데뷔 13년 차인 솔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 달 6일 오후 5시 유튜브 등 라이프타임 디지털 채널에서 공개. /연합뉴스

준을 세워서 산다. 미술, 음악을 통해 표현을 다채롭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솔비는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판매 지원, 애견 유치원 스텝, 성교육 강사 등 이색 분야에 도전한다.

그는 "무엇을 도전하든 맨만큼 중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데뷔 13년 차인 솔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 달 6일 오후 5시 유튜브 등 라이프타임 디지털 채널에서 공개. /연합뉴스

방시혁, 2년 연속 '빌보드 세계 음악시장 리더' 선정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47·사진)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International Power Players)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미국 빌보드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104인 명단에서 방 대표를 음악 제작(Recording) 부문 파워 플레이어로 소개했다.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는 2014년부터 빌보드가 매년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리더를 선정해 공개하는 리스트다. 올해는 방 대표와 함께 라이브네이션

유클 존 레이드 대표, 워너뮤직그룹의 스투 벌겐 대표 등 세계음악계 유명인사가 뽑혔다.

빌보드는 방 대표를 "방탄소년단을 '빌보드 아티스트

100'과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려놓고,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 SPEAK YOURSELF)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킨 지휘자"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음 4월 26일 丁卯)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Daily Fortune/Advice.